

# 既婚女性の 經濟活動과 出産力

具 成 烈

## 目 次

- I. 序 論
- II. 模型의 設定
- III. 模型의 計量化
- IV. 要約 및 政策的 提言

## I. 序 論

최근 우리나라는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增加一路의 海外人力進出등으로 상당히 深刻한 人力難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急激한 賃金上昇은 그간의 풍부한 良質의 勞動力에 바탕을 둔 輸出入國의 基盤을 勿論, 나아가서는 韓國 經濟全體의 基盤을 動搖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力難은 人口增加를 통하여

解決할 수도 없는 것이며 既存人口의 보다 效率的인 活用을 통하여 解決토록 하여야 할 것인 바, 最上策은 全體人口의 50.5%를 占하던 서도 그중의 41.1%만이 經濟活動에 참여하는 女性人力을 動員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sup>.

最近의 연구(Mincer, 1963; Willis, 1973)에 의하면 女性人力의 經濟活動과 이에 따른 所得의 增大는 餘他活動의 機會費用을 높임으로써 出産力減少를 招來하고 나아가서는 人口增加率의 減少에 寄與한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면 女性人力을 經濟活動에 적절히 動員함으로써 長期的으로는 人口成長의 抑制, 短期的으로는 人力需給의 圓滑化에 이바지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本研究는 韓國女性人力의 經濟活動과 出産力間에 과연 이러한 關係가 成立하는지를 實證的으로 檢證함과 동시에 이들에 影響을 주는 要因을 糾明, 政策變數로 提示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子女의 養育과 婦人의 經濟活動이 同時에 決定되는 聯立方程式體系를 設定하여 이를 推定하였고 基礎資料로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1) 男性人力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66년의 78.6%에서 1970년 77.5%, 1974년 76.0%로 減少함으로써 同期間 就業率의 증가(1966년 91.9%에서 1970년 94.6%, 1974년 95.1%)를 相殺하였는 바, 이를 볼 때 男性人力의 活用은 대체로 限界點에 이른 듯하다. 이에 反하여 女性人力의 經濟活動參加率은 就業率과 더불어 꾸준히 增加하고 있으나 그 水準이 아직도 低位에 머물러 있어 活用的 餘地가 相對的으로 많다고 하겠다.

서는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를 利用하였다.

最近 家口單位的 意思決定에 대한 理論을 發展을 거듭하여 女性의 經濟活動과 그들의 出產行爲에 대하여서도 經濟學的 理論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이는 첫째, 經濟活動을 教育, 結婚, 出產 等과 같은 非經濟活動과 結付시키고, 둘째, 市場에서의 賃金率과 家庭에서의 機會費用을 「選擇 變數」(choice variables)로 概念化하는 등의 方式으로 展開되고 있다. 특히 Willis(1973)는 經濟活動과 非經濟活動間의 聯立性에 대한 理論的 基礎를 提供하고 있으며 Cain과 Dooley(1976)는 그에 대한 實證

的 模型을 例示하고 있다.

Willis(1973)는 靜態的 經濟模型을 展開하여 모든 夫婦가 結婚時에 可用한 時間과 財產을 子女의 數와 質<sup>3)</sup>, 그리고 餘他的 財貨를 取得하는 데 어떻게 使用할 것인가에 대하여 平生計劃을 세우며, 이러한 計劃은 이들 夫婦의 消費技術<sup>4)</sup>, 時間, 非勤勞所得의 水準 및 將來 勤勞所得에 의하여 制約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消費技術에 대한 假定과 單純化를 위한 假定<sup>5)</sup>을 보태면 婦人의 經濟活動과 子女 養育의 行態를 나타내는 一般均衡模型의 解가 一聯의 誘導型方程式(reduced-form equation)으로 表現되며 그는 이에 대한 推定을 試圖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子女의 數와 質, 婦人의 經濟活動과 그에 따른 報酬 혹은 家事活動의 機會費用이 男便의 所得, 婦人의 教育水準, 餘生의 期間등에 의하여 同時決定되고 있다는 점이 注目할 만하다.

Cain과 Dooley(1976)는 Willis의 理論的 模型에서 보다 實證的인 內容을 賦與하였다. 이들은 既婚婦人의 出產力, 經濟活動 및 賃金이 家口所得, 婦人의 教育水準, 肉體的 能力, 宗教, 居住地의 形態, 失業率 및 그 產業構造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고<sup>6)</sup> 1970年 標準大都市 統計單位區域(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資料에 의하여 同模型을 推定, 다음과 같은 結果를 提示하였다. 첫째, 出產力이 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은 豫想外로 0에 가까우면서 非有意的이거나 正의 方向으로 有意的이었다. 反面 經濟活動이 出產力에 미치는 影響은, 豫想대로 負의 方向으로 有意的이었다. 그러나 出產力函數에 있어서 餘他變數(예컨대 賃金, 男便의 所得, 教育程度 등)의 影響에 대한 推定値는 豫想外로 符號가 反對이거

- 2) 이 方面에 대한 연구는 T.W. Schultz(1974)에 의하여 集大成되어 있다.
- 3) Willis(1973), Becker(1960, 1973, 1976) 등은 子女의 教育, 健康 기타의 人的 資本을 가리켜 「Quality of Children」이라 하였다.
- 4) Willis는 家計(household)가 子女의 「서비스」와 其他의 財貨를 生産하는 동시에 消費하는 單位로 보고 이러한 財貨의 消費에 따른 技術을 「Consumption Technique」이라 하였다.
- 5) Full information, perfect and costless family planning technique, and rationality of the couple.
- 6) Cain과 Dooley의 模型은 다음과 같이 3개의 內生變數와 常數를 除外한 8개의 外生變數를 가진다. ( )안의 부호는 기대치의 방향을 나타낸다.

	F	W	L	H	N	E	U	D	C	R	I
L	(-)(+)		(-)(-)(+)(-)(-)								
F		(-)(-)(?)(?)(-)							(+)(+)		
W		(-)	(-)		(+)(?)						(+)

註: L; 既婚婦人의 勞動參加率  
 F; 既婚婦人 1,000名當 出產兒數  
 W; 週當 50~52시간 就業時의 可得所得  
 H; 1969年度의 男子平均所得  
 N; 平均財產所得 및 婦人의 就業에 無關한 其他所得  
 E; 女子中位教育水準  
 U; 男子民間失業率  
 D; 身體的으로 6個月 이상 就業할 수 없는 16~64歲 既婚婦人의 比率  
 C; 가톨릭 「敎區學校」에 登錄중인 初中等學生의 全體人口에 대한 比重  
 R; 農村人口의 比重  
 I; 女性人力需要를 나타내는 地域別產業構造指數로서 단위지역의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율이 全國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할 때 그 지역 총취업자 1,000명당 평균 여성취업자의 비율, 즉  $P_i$ 를  $i$  산업의 전국여성취업자비율,  $I_{ij}$ 를  $j$ 지역에서의  $i$ 산업총취업자의 비중이라 할 때  $I_j = \sum P_i I_{ij}$

나 非有意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經濟活動의 賃金彈力性은 所得彈力性보다 일반적으로 그 絕對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賃金函數에 대한 推定值는 가장 불만스러웠으며 다섯개의 說明變數중 出產力變數만이 豫想된 效果를 보였다.

Cain과 Dooley(1976)의 불만스런 結果는 部分的으로는 사용된 資料에 있어서의 出產力變數와 經濟活動變數間의 非兩立性 때문인 듯하다. 同模型의 推定結果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經濟活動變數로서 그들이 택한 居住地 勞動參加率 대신 住民의 平均婚後就業期間을 사용하는 것도 한 方法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實際經濟活動을 나타내는 變數와 出產力 및

賃金變數間의 關係를 살피는 데 보다 適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렇게 할 때 說明變數중 所得變數는 平生 또는 恒常所得을 代表하는 것으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며 餘他變數의 意義도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 II. 模型의 設定

### 1. 模型의 特徵

模型의 設定에 있어서 그 形式은 Cain과 Dooley(1976)의 模型을 따랐으나 韓國의 特殊

〈表 1〉 婦人의 經濟活動과 子女養育에 대한 聯立方程式 模型

	WKS	CEB	QLT	WGE	NWI	UMP	IND	EDU	HEL	WKB	DTH	SXP	FMP	ADQ	AGE	DOM	WKP	PAR
WKS		(-)	(+)	(+)	(-)	(-)		(-)	(+)					(+)	(+)	(-)	(+)	
CEB	(-)		(-)	(-)	(+)		(-)	(-)	(+)	(+)	(-)			(-)	(+)			
QLT	(+)	(-)		(+)	(+)		(+)	(+)	(-)									
WGE	(+)	(-)				(-)	(+)	(+)	(+)	(+)					(+)			

註: WKB, WKS; 婚前, 婚後就業年數

CEB; 出產子女의 數

QLT; 男兒에 대하여 期待하는 最高 學歷

(1) 國民學校 (2) 中學校 (3) 高等學校 (4) 大學校 (5) 留學

WGE; 婦人의 實際 혹은 潛在의 月所得(단위: 萬원)

NWI; 婦人 이의의 家口所得(단위: 萬원)

UMP; 居住地의 男子失業率(단위: %)

IND; 女性人力의 需要를 나타내는 居住地 產業構造指數(註 6 및 本文 2의 라. 참조)

EDU, HEL; 婦人, 男便의 敎育程度

(0) 無學 (1) 國民學校 (2) 中學校 (3) 高等學校 (4) 大學校 以上

DTH; 死亡子女의 數

SXP; 「콤」(Coomb)의 男兒選好指數(各組에서 첫 數字는 希望男兒의 數를, 둘째 數字는 希望女兒의 數를 나타내며 各組는 選好된 順으로 羅列하였다.)

(1) (0, 3) (2) (1, 2)-(0, 3) (3) (1, 2)-(2, 1)-(0, 3) (4) (1, 2)-(2, 1)-(3, 0) (5) (2, 1)-(1, 2)-(0, 3)

(6) (2, 1)-(1, 2)-(3, 0) (7) (2, 1)-(3, 0) (8) (3, 0)

FMP; 超過子女數를 가졌을 때 避妊道具의 使用 與否

(0) 사용 않았음 (1) 사용하였음

ADQ; 現在의 家口所得에 대한 婦人의 滿足度

(1) 充分 (2) 適合 (3) 약간 不足 (4) 많이 不足

AGE; 婦人의 年齡

DOM; 結婚年數

WKP; 最近의 就業場所

(1) 家內 (2) 家口所有의 農地 (3) 其他 家外

PAR; 姻父母 혹은 親父母의 同居與否

(0) 없음 (1) 同居중이거나 同居한 적이 있음

한 與件, 使用된 資料의 差異 등으로 다음과 같은 事項을 追加的으로 考慮하여 反映시켰다.

첫째, 韓國의 경우 先進諸國에 비하여 子女死亡, 男兒選好 등이 顯著하며 避妊에 대한 知識 및 實踐率은 相對的으로 낮다. 또한 女性職業의 相當數가 子女養育과 兩立的이고, 어머니가 就業하는 경우 子女를 대신 돌봐 줄 家族이 있는 大家族制度가 支配的이며, 男尊女卑思想, 比較的 嚴한 家父長制下에 있어 婦人의 意思決定에 있어서 男便의 教育水準은 婦人의 教育水準에 못지 않은 重要性을 갖는다. 所得에 대한 應答에 대하여서도 그 信賴度가 낮은 實情이어서 家口所得에 대한 應答者의 主觀的인 評價로서 이를 뒷받침할 必要性이 있다. 둘째, 個別資料를 使用함에 따른 年齡, 結婚期間, 婚前就業期間 등 個人의 生活週期上의 差異를 統制하였다. 셋째, Becker (1960), Willis(1973) 등의 主張에 따라 子女養育에 있어서 質的인 面을 重視하여 子女에 대한 教育熱로서 이를 明示的으로 考慮하였다.

設定된 模型은 <表 1>과 같으며 內生變數의 數는 4, 外生變數의 數는 15로서 이들 諸變數는 標本婦人의 一生에 걸친 事項을 各各 나타내는 뜻으로 쓰여졌다. 內生變數는 經濟活動에 관한 變數(經濟活動期間, 賃金水準)와 子女養育에 관한 變數(出生子女數, 子女教育熱)로 兩分할 수 있으며 外生變數는 ① 家口員의 人的資本水準의 差異(男便 및 婦人의 教育程度, 婚前就業期間) ② 希望된 子女數를 達成하는 過程에서의 考慮事項(子女의 死亡, 男兒選好, 避妊實踐與否) ③ 家口의 所得에 관한 事項(餘他家口員의 所得, 現家口所得에 대한 滿足與否) ④ 生活週期上의 差異(年齡, 結婚

期間) ⑤ 經濟活動과 子女養育의 兩立性의 差異(就業場所, 父母의 同居與否) ⑥ 居住地 經濟狀態의 差異(失業率, 産業構造指數)에 관련된 6개의 變數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方程式의 設定

<表 1>의 個別方程式의 設定과 各方程式에 포함된 個個變數가 被說明變數에 대하여 가지는 效果는 다음과 같이 說明된다.

### 가. 經濟活動

婦人의 經濟活動(WKS)은 經濟活動에서 얻게 되는 所得의 程度(WGE), 家事活動時間에 대한 需要(CEB, QLT, EDU), 就業機會(UMP), 婦人이 直接 經濟活動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婦人外家口所得의 程度(NWI, ADQ) 및 經濟活動과 非經濟活動의 兩立可能性(WKP, PAR)등에 의하여 決定된다.

婚後就業年數로 나타낸 婦人의 경제활동(WKS)은 出生子女數(CEB)와는 그 制限된 兩立性 때문에 負의 關係를, 賃金水準(WGE) 및 婦人外家口所得(NWI)과는 實證的 혹은 理論的 根據(Mincer, 1962a; Cain, 1966; Bowen & Finegan, 1969)에 의하여 各各 正 및 負의 關係를 가질 것으로 期待된다.

教育程度(EDU)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一見 正의 效果를 가질 듯하나 本研究에서처럼 賃金水準을 統制한 이상 오히려 負가 될 可能性이 크다. 왜냐하면 교육은 所得水準 — 賃金에 의하여 計測된 名目所得이든 計測이 되지 않은 潛在, 혹은 實質所得이든 — 뿐만 아니라 非經濟活動에 있어서의 生産性도 向上시킬 것 (Gronau, 1976; p.204)이며 더우기 名目賃金

(WGE)이 統制된 이상 教育水準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非計測實質所得의 경제활동에 대한 正의 效果가 非經濟活動에 있어서의 生産性向上으로 인한 負의 效果를 充分히 相殺하지 못한다면 全體的으로 負의 效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婚前就業期間(WKB)은 婚後의 勞動供給(WKS)에 正의 效果를 보일 것으로 期待된다. 이는 婚前的 就業經驗이 就業에 대한 選好를 暗示할 수 있기도 하며 就業年數, 經驗 등에 準하여 賃金(WKP)으로 計測되지 않은 有形 또는 無形の 報酬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條件이 同一하다면 家事活動과 經濟活動의 兩立性(WKP)은 分明히 非貨幣的 便益이며 따라서 經濟活動(WKS)을 增進시킬 것이다. 한편 職業의 兩立程度가 一定하다면 집안에 어린 子女를 돌볼 수 있는 老父母와의 同居는 經濟活動을 보다 容易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增進시킬 可能性이 크다<sup>7)</sup>.

다른 時點에 있어서 勞動과 餘暇間的 代替可能性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보다 쉽게 일거리를 구할 수 있는 好景氣에 就業을 하려 할 것이며 비슷한 論理로 就業機會가 많은 地域에 居住하는 婦人의 經濟活動이 보다 빈번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地域經濟狀態의 指標로서 女子失業率보다는 男子失業率(UMP)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前者를 外生變數로 看做하기가 힘든 반면 後者의 使用은 男便의 經濟活動이 外生的이라는 暗默的 假定과 一貫성이 있기 때문이다.

## 나. 出產力

出產된 實際子女數는 希望子女數와 이에 대한 超過子女數(excess number of children)로 區分할 수 있으며 希望子女數는 다시 子女의 出產 및 養育에 따른 直接 및 間接費用의 水準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經濟的 能力에 따라 달라지며 超過子女數는 子女의 死亡, 避妊知識程度, 그리고 子女의 性選好 등에 의하여 左右 된다.

本 研究에서는 希望하는 子女教育水準(QLT)으로서 子女養育에 따를 直接費를, 또한 經濟活動을 할 때 婦人이 얻게 되는 月所得(WGE)으로서 그 間接費(Mincer, 1963)를 代表하고 있으며, 間接費는 다시 就業經驗(WKB, WKS), 教育水準(EDU) 등의 人的資本의 形成에 關聯된 變數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代表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 費用에 關聯된 變數들은 모두 出產力에 대하여 負의 效果를 가질 듯하나 實際間接費를 나타내는 變數들은 所得效果와 代替效果를 同時에 가짐으로써 그 全體的 效果의 方向이 理論的으로 不分明하며 다만 實證的으로 負의 關係(Mincer, 1963; Cain & Weininger, 1973)를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反하여 婦人外家口所得(NWI)은 費用이 統制된 후의 所得效果만을 測定할 것이므로 正의 關係(Becker, 1960; Becker and Lewis, 1973; Becker and Tomes, 1976)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教育水準(EDU)의 出產力에 대한 效果는 上記한 間接費로서의 效果以外에도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增大,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의 增大, 「子女서비스에 대한 代替財의 相對的 豊富」 등을 이유로 多分히 負의 方向일 것

7) 물론 媳父母와 같이 同居하는 경우 모실 必要性이 있으므로 오히려 經濟活動이 萎縮될 수도 있다.

로豫想된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들은 大部分이 보다 具體的인 變數에 의하여 代表되고 있어서 本研究에서 純粹한 教育 固有의 效果는 「子女 서비스에 대한 代替財의 相對的 豊富」에 局限되므로 多少 弱하게 나타날 것으로豫想된다.

避妊實踐(FMP), 性選好(SXP), 子女死亡(DTH) 등은 모두 希望子女數와 實際子女數間의 差異인 超過子女數를 說明하는 變數들이다. 避妊은 물론 超過子女數를 줄이는데 寄與할 것이며 性選好 및 子女死亡은 이를 높이는데 寄與할 것이다. 子女死亡이 超過子女數를 늘인다는 理由는 비록 이론적으로는 작은 子女死亡이 子女養育費를 增大시킴으로써 希望子女數를 줄이는 負의 代替效果도 가질 것이나, 實際 그 代替彈力性이 매우 낮아 死亡子女를 數的인 面에서 補充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超過子女를 갖는 경향이 支配的이기 때문이다(Schultz, 1974: pp.15~18).

結婚期間(DOM)과 年齡(AGE)은 各各 可妊期間과 年齡이 自然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統制하기 위하여 導入된 것이며, 같은 年齡에 結婚期間이 길면 出産兒數도 많아지겠으나 結婚期間이 같을 때 年齡이 많다고 반드시 出産兒數가 많은 것은 아니다.

#### 다. 子女의 教育

子女의 教育熱, 즉 子女의 人的資本에 대한 父母의 投資水準은 一定數의 子女를 養育하는데 있어서 直接·間接의 總費用과 子女의 [死亡에 대한 危險程度, 換言하면 投資에 대한 安定度, 家口의 經濟的 位置 등에 의하여 決定된다.

限定된 財源으로 子女의 數와 質을 다 높

일수는 없으므로 다른 條件이 同一할 때 出産兒數가 많다면 子女教育熱은 낮을 것이 暗示된다. 婦人의 人的資本水準에 關聯된 變數인 婚前後就業經驗과 教育水準(WKB, WKS, EDU)은 子女教育에 있어 機會費用으로서 負의 效果를 가지기보다는 資源擴張要因으로 作用함으로써 子女教育에 대한 投資를 높일 것으로豫想되는 바 이는 子女教育을 위하여 반드시 어머니의 直接的인 「서비스」가 必要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婦人賃金과 婦人外 家口所得(WGE, NWI)의 增大는 子女教育에의 投資를 높일 것으로 期待된다. 한편 다른 條件이 같을 때 婦人의 經濟活動이 家事活動과 兩立할 수 있다는 事實은 子女教育에의 投資를 높일 것이며 反面 子女의 死亡頻度가 높으면 그 投資意慾이 감퇴될 것이다.

#### 다. 賃金水準

賃金은 勞動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보고 本研究에서는 需要面은 居住地의 經濟狀態에 의하여 供給面은 標本의 人的 資本의 形成에 關聯된 變數에 의하여 나타내었다. 追加的으로, 經濟 및 非經濟活動間의 兩立性(WKP)도 賃金決定의 外生要因으로 規定하였는 바 이는 賃金과 兩立性間에 代替關係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考慮 없이는 다른 要因의 效果推定에 있어서 下向偏倚가 생길 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教育水準(EDU), 婚前後就業經驗(WKB, WKS), 年齡(AGE) 등은 모두 賃金水準에 대하여 正의 關係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Mincer, 1962b; Hanoch, 1967; Mincer & Polachek, 1974), 出産兒數(CEB)는 그만큼

經濟活動에서의 後退 내지는 經歷의 斷絶(carrier disruption)을 意味하므로 負의 關係를 가질 것이다.

남편의 教育水準은 婦人の 賃金에 直接 혹은 間接적으로 影響을 미친다. 즉, 婦人の 敎養 혹은 人的資本의 水準을 높일 수도 있고 (Benham, 1974) 혹은 報酬가 높은 職業을 갖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

失業率(UMP)과 産業構造指數(IND)는 各 居住地에 있어서의 地域經濟의 狀態(勞動에 대한 需要)와 女性就業機會의 相對的 比重(職場의 供給)을 나타낸다. 産業構造指數는 앞에서 引用한 여러 研究(Bowen and Finegan, 1969: Ch. 6; Fields, 1976; Cain and Dooley, 1976)에 따라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즉, 全國적으로  $i$  産業에 종사하는 女性就業者の 比重을  $P_i$ 로,  $j$  地域  $i$  産業에 종사하는 總就業者數를  $T_{ij}$ 로  $j$  地域의 總就業者數를  $T_j$ 로 나타낼 때,  $j$  地域의 産業構造指數  $IND_j$ 는

$$IND_j = \sum_i P_i \cdot (T_{ij}/T_j) \text{이다.}$$

失業率(UMP)은 賃金水準과 負의 關係를, 産業構造指數(IND)는 正의 關係를 보일 것으로 期待된다.

### Ⅲ. 模型의 計量化

#### 1. 利用資料

資料는 1974年 9월에 韓國家族計劃研究院과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世界出產力調查의 一環으로 실시한 韓國出產力調查資料를 利用하였다. 同調査는 家口調査와 個人調査로 構成되어 있는 바 이 중 個人調査를 利用하였으며 이는 15~49歲 사이의 既婚婦人 5,420명을 標本으로 하고 있다.

地域經濟의 産業構造 및 失業率에 대한 資料는 1974年 11月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行한 特別僱傭調査에서 구하였다. 이 자료를 援用할 수 있는 것은 이 調査가 出產力調査보다 훨씬 큰 標本(市部 93,000, 郡部 36,000家口)이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時期에 조사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며, 資料利用의 可能性 때문에 地域經濟의 單位는 35個 都市 및 各道의 9個 郡部로 하였다.

總標本 5,420중 結婚回數 一回의 有配偶婦人을 分析對象으로 하되 該當事項에 대하여 不確實한 대답을 가진 婦人은 除外하였다. 또한 婦人の 月所得이 100,000원 이상이거나 家口所得이 120,000원 이상인 標本도 除外되었으며 實際 사용된 標本の 數는 다음과 같다<sup>8)</sup>.

地域	年齡		合 計
	35歲未滿	35歲以上	
市 部	353(0.21)*	308(0.26)	661(0.23)
郡 部	233(0.20)	202(0.15)	435(0.17)
合 計	586(0.21)	510(0.20)	1,096(0.20)

\* ( )안의 數字는 元래의 標本에 대하여 實際 使用된 標本の 比重을 나타냄.

8) 婦人所得, 婦人外所得의 標本平均은 10,000원을 단위로 하여 1.9, 3.3, 그 標準偏差는 2.3, 2.7로서 除外基準인 婦人所得 10, 婦人의 所得 12는 標本平均에서 각각의 標準偏差 3배이상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除去한 것은 이들 極限值가 最小自乘「피팅」(fitting)에 미치는 影響을 排除하기 위하여서이다.

## 2. 構造方程式의 推定

推定될 模型(表 1 참조)은 대체로 過大識別(over-identification)되고 있다. 즉, 常數를 포함한 外生變數의 數는 15인 데 反하여 內生變數의 數는 4이다. 適正識別(just-identification)을 위하여서는 各方程式의 右便에 12개의 變數가 있어야 할 것이나 4개의 方程式중 어느 것도 이 條件을 充足치 못하고 있다.

實際推定에 있어서는 많은 說明變數를 가질 때 따르기 쉬운 共線性(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하여 加급적 包含된 變數의 數를 줄였다. 즉, 推定方法으로서 二段階 最小自乘法를 택하였는데 첫단계의 推定에 있어서는 보다는 說明值를 얻기 위하여 模型에 나타나는 모든 外生變數를 사용하였으나 第二段階의 推定에서는 共線성이 높은 外生變數는 加급적 같은 方程式의 推定에서는 除外하였다.

이외에도 實際의 推定過程에 있어서 多少의 調整이 있었던 바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家口所得에 대한 滿足度(ADQ)와 產業構造指數(IND)의 두 變數를 經濟活動(WKS)과 賃金(WGE) 方程式에서 各기 除外하였는데 이는 이들 두 變數가 婦人外家口所得(NWI)과 失業率(UMP)과 높은 相關關係(各各 -0.43, -0.90)를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教育水準(EDU), 婚前就業期間(WKB), 家族計劃(FMP)을 出產力(CEB) 方程式에서 除去하였다. 그 理由는 教育水準과 婚前就業期間은 餘他的 變數와 높은 共線性을 가짐과 함께 有意性도 없었기 때문이며, 家族計劃은 이를 나타낼 適當한 變數의 不在 및 그 非有意性 때문이다. 反面 失業率은 出產力에 대한 效果가 상

당히 有意的인 것으로 判明되어 이를 出產力 方程式(CEB)에 包含토록 하였다. 셋째, 子女教育(QLT)과 經濟活動(WKS)의 두 內生變數는 서로를 說明하는 데 있어 有意性이 없을 뿐 아니라 相互의 說明을 위하여 導入되었을 때 다른 係數에 대한 推定值만 不安定하게 하였기 때문에 子女教育은 經濟活動方程式에서 經濟活動은 子女教育方程式에서 各各 除去되었다. 비슷한 理由로 子女教育은 賃金方程式에서 婚前就業期間은 子女教育方程式에서 除去되었다.

地域, 年齡에 의한 分割 推定은 各方程式의 第1段階推定(estimation of the reduced form equation)에 대한 「차우 테스트」(Chow test)의 結果 合當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地域에 따른 區分은 子女教育方程式을 除外한 나머지 세 方程式에 대하여 1% 有意性을 보였으며, 市部를 다시 年齡別로 區分하는 것도 4개의 方程式 모두 5% 有意性을 보였고, 단지 郡部의 年齡區分에 대하여는 經濟活動, 出產力方程式에 대하여서는 1% 有意性을 보인 反面 子女教育, 賃金方程式에 대하여서는 5%에서도 非有意的이었다.

方程式別 推定の 結果는 다음과 같다.

### 가. 經濟活動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婦人의 賃金(WGE)과 婦人外家口所得(NWI)은 그들의 經濟活動과 대체로 期待된 대로의 關係를 보이는 듯하나 市部의 婦人에 대하여서만 그 有意性이 局限되어 있다. 한편 經濟活動에 대한 出產力(CEB)의 影響은 標本全體를 대상으로 할 때는 期待된 負의 效果를 有意的으로 보이고 있으나 地域別, 年齡別로 區分하였을 때는 모



두 非有意的이며 出産을 完了한 35歲 이상의 婦人에 局限하여 負의 影響을 미치고 있다.

結婚期間(DOM), 婚前就業期間(WKB), 失業率(UMP), 父母와의 同居(PAR), 就業場所(WKP)등은 모두 期待된 影響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最近 1年間的 地域經濟狀態를 反映할 따름인 失業率(UMP)이 一生을 통한 經濟活動에 대하여 相當히 有意的이고 期待된 效果를 보인다는 것이 多少 意外인 감이 있으나 失業率이 地域産業의 産業構造指數(IND)와 높은 相關關係(-0.9)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긍이 간다.

經濟活動에 대한 教育水準(EDU)의 效果는 全體的으로 負의 方向이며 특히 젊은 階層에

대하여 有意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前述한 바의 經濟活動에 대한 教育의 實質所得 增大效果가 非經濟活動의 生産性增大效果에 의하여 壓倒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sup>9)</sup>.

地域別, 年齡別로 나누어 볼 때 結婚期間(DOM), 婚前就業期間(WKB), 經濟活動과 家事活動의 兩立性(PAR, WKP)이 一定하다던 市部에서는 賃金水準이, 郡部에서는 就業機會가 婦人의 經濟活動期間을 決定한다고 하겠으며, 市·郡을 不問코 젊은 主婦들은 賃金 혹은 就業機會가 一定하다고 할 때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經濟活動期間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經濟活動方程式의 推定結果

	市 部		郡 部		全 國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WGE	0.988 <sup>3)</sup> (0.409)	0.952 <sup>1)</sup> (0.678)	0.230 (0.729)	0.011 (1.752)	0.727 <sup>1)</sup> (0.462)
CEB	0.535 (0.613)	-0.256 (0.567)	0.505 (1.437)	-0.087 (0.587)	-0.564 <sup>1)</sup> (0.389)
DOM	0.326 <sup>2)</sup> (0.164)	0.231 <sup>3)</sup> (0.086)	0.597 <sup>1)</sup> (0.382)	0.172 <sup>1)</sup> (0.117)	0.461 <sup>3)</sup> (0.066)
WKB	0.157 <sup>3)</sup> (0.053)	0.326 <sup>3)</sup> (0.103)	0.053 (0.065)	0.613 <sup>3)</sup> (0.167)	0.277 <sup>3)</sup> (0.047)
NWI	0.053 (0.073)	-0.423 <sup>3)</sup> (0.159)	0.113 (0.138)	-0.164 (0.284)	-0.154 <sup>2)</sup> (0.075)
EDU	-0.697 <sup>2)</sup> (0.386)	-0.727 (0.604)	-0.874 <sup>2)</sup> (0.424)	-0.869 (0.686)	-0.919 <sup>3)</sup> (0.336)
UMP	-0.039 (0.078)	-0.121 (0.210)	-0.702 <sup>3)</sup> (0.227)	-1.816 <sup>3)</sup> (0.563)	-0.471 <sup>3)</sup> (0.054)
PAR	0.039 (0.326)	1.260 <sup>2)</sup> (0.715)	0.915 <sup>1)</sup> (0.598)	2.629 <sup>3)</sup> (1.027)	1.247 <sup>3)</sup> (0.333)
WKP	-0.347 <sup>2)</sup> (0.815)	-0.290 (0.364)	-0.244 (0.284)	-1.467 <sup>3)</sup> (0.606)	-0.519 <sup>3)</sup> (0.181)
C	-0.487 (1.275)	4.845 <sup>1)</sup> (3.612)	2.859 <sup>1)</sup> (2.164)	16.412 <sup>3)</sup> (6.021)	6.082 <sup>3)</sup> (1.324)
自由度	343	298	223	192	1,086

註 : 1) 1.282 ≤ t < 1.645

2) 1.645 ≤ t < 2.326

3) 2.326 ≤ t

( )안은 標準誤差.

9) 本稿 II·2.를 참조.

나. 出産力

出産力에 대한 構造方程式의 推定結果는 <表 3>과 같다. 年齡(AGE), 結婚期間(DOM), 死亡子女數(DTH) 등은 郡部 35세 이상 階層에 대한 年齡變數의 效果를 除外하고는 모두 90% 信賴水準에서 有意의이다. 結婚期間과 年齡變數의 效果를 합쳤을 때 35세 미만 階層에 대하여서 一年間 약0.25의 出産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이들에 대하여 出産터율이 平均 4年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한편 死亡한 子女의 약 받은 새로운 出産을 誘引하며 이러한 誘引效果는 35歲 이상

階層보다 35세미만 계층에 대하여 낮은데 이는 後者에게 子女出産을 完了할 만한 充分한 期間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看做된다.

子女教育(QLT)과 婦人의 可得賃金水準(WGE)은 子女養育에 다른 直接·間接의 費用을 나타내며 標本全體에 대하여 一貫性있게 出産力과 負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한편 婦人外 家口所得(NWI)은 다소 一貫性은 없으나 有意의일 때는 期待된 대로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賃金效果가 所得效果보다 그 絕對值에 있어서 훨씬 큰 것은 注目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sup>10)</sup>.

經濟活動期間(WKS)은 出産力(CEB)에 대

<表 3> 出産力方程式의 推定結果

	市 部		郡 部		全 國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QLT	-0.768 (0.687)	-0.405 (0.578)	-0.357 (0.407)	-1.000 (1.058)	-0.645 <sup>1)</sup> (0.407)
WKS	-0.046 (0.076)	0.007 (0.050)	0.004 (0.097)	-0.016 (0.048)	-0.001 (0.031)
WGE	-0.117 <sup>2)</sup> (0.058)	-0.122 (0.141)	-0.312 <sup>1)</sup> (0.243)	-0.392 (0.413)	-0.268 <sup>3)</sup> (0.087)
AGE	0.054 <sup>3)</sup> (0.023)	-0.109 <sup>2)</sup> (0.037)	0.046 <sup>1)</sup> (0.031)	-0.069 (0.064)	0.026 <sup>1)</sup> (0.017)
DOM	0.200 <sup>3)</sup> (0.050)	0.145 <sup>3)</sup> (0.029)	0.208 <sup>3)</sup> (0.067)	0.079 <sup>1)</sup> (0.053)	0.120 <sup>3)</sup> (0.017)
DTH	0.427 <sup>3)</sup> (0.096)	0.621 <sup>3)</sup> (0.095)	0.183 <sup>1)</sup> (0.126)	0.778 <sup>3)</sup> (0.128)	0.503 <sup>3)</sup> (0.053)
SXP	0.009 (0.055)	0.009 (0.068)	-0.048 (0.084)	0.056 (0.118)	0.014 (0.040)
NWI	0.039 (0.031)	-0.001 (0.051)	0.056 (0.047)	0.109 <sup>1)</sup> (0.075)	0.036 <sup>1)</sup> (0.024)
UMP	-0.033 <sup>2)</sup> (0.025)	-0.093 <sup>2)</sup> (0.045)	-0.049 (0.090)	-0.198 (0.173)	-0.064 <sup>3)</sup> (0.017)
C	2.996 (2.681)	7.430 <sup>3)</sup> (2.715)	2.137 <sup>1)</sup> (1.580)	10.523 <sup>3)</sup> (4.280)	4.208 <sup>3)</sup> (1.385)
自由度	343	298	223	192	1,086

註: 1)  $1.282 \leq t < 1.645$   
 2)  $1.645 \leq t < 2.326$   
 3)  $2.326 \leq t$   
 ( )안은 標準誤差.

10) 여기서 婦人의 임금수준은 순수한 所得效果 이외에도 그 수준으로 子女養育에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낸다고 할 때 另 종의 價格效果도 갖는 것이다. 따라서 負의 賃金效果는 價格效果가 壓到的인 影響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表 4〉 子女教育方程式의 推定結果

	市 部		郡 部		全 國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WGE	-0.021 (0.050)	0.200 <sup>3)</sup> (0.065)	0.182 <sup>1)</sup> (0.119)	0.046 (0.177)	0.166 <sup>3)</sup> (0.044)
CEB	-0.104 <sup>1)</sup> (0.028)	-0.003 (0.062)	-0.082 <sup>2)</sup> (0.039)	-0.133 (0.133)	-0.043 <sup>3)</sup> (0.016)
EDU	0.080 <sup>1)</sup> (0.054)	-0.011 (0.059)	0.127 <sup>1)</sup> (0.078)	0.162 <sup>1)</sup> (0.070)	-0.024 (0.037)
DTH	0.040 (0.050)	-0.081 <sup>1)</sup> (0.063)	0.015 (0.085)	0.118 (0.113)	0.016 (0.027)
NWI	0.027 <sup>2)</sup> (0.012)	0.057 <sup>2)</sup> (0.016)	0.025 (0.026)	0.028 (0.031)	0.036 <sup>3)</sup> (0.009)
WKP	-0.036 <sup>1)</sup> (0.028)	-0.078 <sup>2)</sup> (0.036)	-0.111 <sup>2)</sup> (0.056)	0.010 (0.063)	-0.071 <sup>3)</sup> (0.021)
C	4.041 <sup>3)</sup> (0.110)	3.359 <sup>3)</sup> (0.313)	3.502 <sup>3)</sup> (0.250)	3.971 <sup>3)</sup> (0.973)	3.358 <sup>3)</sup> (0.095)
自由度	346	301	226	195	1,089

註: 1)  $1.282 \leq t < 1.645$

2)  $1.645 \leq t < 2.326$

3)  $2.326 \leq t$

( )안은 標準誤差.

〈表 5〉 賃金方程式의 推定結果

	市 部		郡 部		全 國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35 <sup>+</sup>	
WKS	0.493 <sup>3)</sup> (0.127)	0.084 <sup>1)</sup> (0.051)	0.129 (0.134)	0.018 (0.047)	0.069 <sup>2)</sup> (0.033)
CEB	-0.990 <sup>3)</sup> (0.295)	-0.092 (0.121)	-0.519 <sup>1)</sup> (0.400)	-0.146 <sup>1)</sup> (0.093)	-0.234 <sup>3)</sup> (0.076)
EDU	0.754 <sup>3)</sup> (0.154)	0.535 <sup>3)</sup> (0.110)	0.322 <sup>2)</sup> (0.155)	-0.095 (0.517)	0.506 <sup>3)</sup> (0.063)
WKP	0.281 <sup>3)</sup> (0.106)	0.144 <sup>2)</sup> (0.087)	0.087 (0.115)	-0.079 (0.140)	0.164 <sup>3)</sup> (0.47)
AGE	0.052 (0.047)	0.021 (0.024)	0.051 <sup>1)</sup> (0.039)	-0.028 (0.026)	0.027 <sup>2)</sup> (0.016)
WKB	-0.073 <sup>2)</sup> (0.042)	-0.053 <sup>2)</sup> (0.028)	0.004 (0.025)	-0.040 (0.038)	-0.023 <sup>1)</sup> (0.014)
HEL	-0.095 (0.138)	0.224 <sup>3)</sup> (0.082)	0.194 <sup>2)</sup> (0.107)	0.157 <sup>1)</sup> (0.108)	0.140 <sup>3)</sup> (0.046)
UMP	0.013 (0.051)	-0.024 (0.051)	0.113 (0.107)	0.203 <sup>1)</sup> (0.130)	0.036 <sup>2)</sup> (0.018)
C	-0.014 (1.128)	0.197 (1.046)	-0.075 (0.819)	3.089 <sup>3)</sup> (1.285)	0.266 (0.258)
自由度	344	299	224	193	1,087

註: 1)  $1.282 \leq t < 1.645$

2)  $1.645 \leq t < 2.326$

3)  $2.326 \leq t$

하여 아무런 體系의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는 <表 2>의 結果와 어느 정도 符合하는 것이라 하겠다. 失業率(*UMP*)과 出産力이 負의 關係를 보이는 것은 出産力이 景氣變動에 敏感한 것(Becker, 1960)이라기보다는 失業率과 産業構造指數와의 높은 相關關係 때문인 것으로 看做된다. 즉, 女性就業機會가 높은 곳은 經濟活動과 家事活動이 比較的 兩立的(MaCabe and Rosenzweig, 1976)이며 또한 産業化가 덜된 곳이기도 한데 이런 점들은 모두 出産力을 높이는 要因인 것이다. 男兒選好度(*SXP*)는 市部 35세 이상 階層에만 有意의으로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有意性이 制限된 理由는 標本의 大多數가 二男一女를 選好하고 있어 標本間 差異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看做된다.

地域別, 年齡別로 나누어 볼 때 市部婦人들이 地域經濟狀態에 다소 敏感하며 35세 이상 계층보다는 35세미만 계층이 子女養育에 따른 機會費用(可得賃金)에 敏感하다는 점이 特記할 만하다. 한편 結婚期間, 年齡, 子女死亡 등의 效果는 地域과 年齡에 關係없이 出産力에 대하여 有意의임을 보이고 있다.

#### 다. 子女의 教育

出産兒數(*CEB*)는 <表 4>와 같이 標本全體에 걸쳐 子女의 教育(*QLT*)에 대하여 負의 效果를 一貫性 있게 보이고 있으나 35세미만 層에 대하여서만 그 有意性이 制限되어 있다.

賃金(*WGE*)과 婦人外所得(*NWI*)의 效果는 標本全體에 대하여서는 正의 方向으로 有意의이지만 地域別, 年齡別로 나누어 볼 때는 그 有意性이 制限되어 있으며 특히 婦人外所得의 效果는 市部에서만 有意의이다.

대체로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또는 婦人의 就業場所가 家事活動과 보다 兩立的일수록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婦人의 教育이 子女教育에 미치는 效果에 있어서 特記할 만한 것은 推定된 係數의 크기만 본다면 郡部의 婦人들의 教育熱意가 높다고 하겠으나 이는 실제 이들의 平均教育水準이 워낙 낮기 때문(市部의 1.7, 1.3에 대하여 1.2, 0.7)인 것이며 婦人의 教育水準이 같을 때의 教育熱意의 程度는 이와 다를 것이다.

子女의 死亡(*DTH*)이 子女教育에 미치는 영향은 市部 35세 이상層에 한하여 예상된 대로 負의 方向으로 有意의이다. 餘他の 모든 標本에 대해서는 非有意의이긴 하나 예상외로 正의 效果를 보이고 있는 바, 子女에 대한 投資에 따른 危險度를 測定하기 위하여서는 個別家口가 경험한 死亡子女의 數(*DTH*)보다는 地域單位의 未成年子女의 死亡率이 보다 適合할 것으로 看做된다.

子女教育 決定要因에 있어서의 地域別 年齡別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市部에서의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는 家口所得이 높을수록, 또 婦人의 就業場所가 家事活動에 兩立的일수록 높으며 郡部에서는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젊은 層에 대하여서는 子女의 數가 많을수록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는 낮음으로써 子女의 數와 質 사이에 뚜렷한 代替關係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婦人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婦人의 就業場所가 兩立的일수록 子女教育의 熱意도 높음을 보이고 있다.

#### 라. 賃金水準

人的資本의 形成에 關聯된 變數가 婦人의

賃金水準에 미치는 影響은 <表 5>와 같이 郡部보다는 市部에서, 35세이상 層보다는 35세 미만 層에 있어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標本全體에 걸쳐 婦人의 可得賃金水準에 대하여 出産力은 負의 關係를, 教育水準은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으며 婦人의 教育水準이 本人의 賃金水準에 미치는 直接的인 效果가 男便의 教育水準이 婦人의 賃金에 미치는 間接效果보다는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年이라는 同一期間을 두고 볼 때 經濟活動期間으로서의 1년이 年齡으로서의 1년보다는 賃金水準에 미치는 效果로 볼 때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婚前就業期間(WKB)이 賃金水準에 負의 效果를 보인다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이다. 이는 婚前就業期間이 婚後就業期間(WKS)과 正의 關係를 가지며 出産力이 賃金水準과 負의 關係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겠다. 즉, 婚前就業은 대개 經濟的 必要性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그들이 택한 職場은 報酬가 낮았을 公算이 크다. 또한 일단 職場生活을 하게 되면 婚後에도 하게 될 可能性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職場生活은 結婚과 子女養育 등으로 일단 斷絶되게 된다. 이후 다시 職場生活을 하게 될 때 婚前에 종사했던 職場과 비슷한 곳을 택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失業率(UMP)이 賃金水準에 대하여 正의 效果를 보인다는 것도 예상 밖이다. 그 理由로서는 우선 本研究에서 賃金水準(WGE)은 時間率이 아닌 月所得에 의하여, 失業率은 男子 失業率(UMP)에 의하여 代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家長失業率이 높은 地域에

서는 現在 혹은 將來의 家口所得이 줄어들 可能性에 對備하여 婦人들이 同一한 賃金率下에서도 보다 많은 시간을 일함으로써 月收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서는 男子失業率이 높다는 것은 産業化가 상당히 進行되었음을, 따라서 就業女性에 대한 平均 給與도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地域別, 年齡別로 나누어 본 賃金決定要因의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市部婦人의 賃금이 結婚前後의 就業期間, 婦人의 教育水準 등 本人의 人的資本에 關聯된 變數와 就業場所에 의하여 決定되는 反面 郡部婦人의 賃金은 出産力과 男便의 教育水準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市·郡을 不問하고 35세 미만 層의 賃금이 本人의 教育水準과 出産力 등에 의하여 決定되는 反面 35세 이상 層의 賃금이 男便의 教育水準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도 注目된다.

## IV. 要約 및 政策的 提言

### 1. 要約

標本全體를 통하여 볼 때 內生變數間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밝혀졌다. 첫째, 個別婦人의 出産力은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 및 婦人의 可得賃金水準과 有意的으로 負의 關係를 보였다. 그러나 出産力과 經濟活動期間 사이의 關係는 다소 약하여 出産力은 經濟活動期間에 대하여 有意的으로 負의 效果를 보인 反面 그 逆은 成立되지 않았으며 負의 出産力效

果도 標本을 地域別, 年齡別로 區分하였을 때는 그 有意性을 喪失하였다. 둘째, 婦人의 賃金水準은 그들의 經濟活動期間에 비례하였다. 그러나 子女教育과의 關係는 一方的이어서 賃金水準이 높으면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도 높아지나 그 逆은 成立되지 않음을 보였다.

標本을 地域別, 年齡別로 區分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發見되었다. 첫째, 市部婦人의 經濟活動은 賃金水準에, 賃金水準은 形成된 人的資本의 水準과 就業場所에 敏感히 反應하였다. 出產力은 地域經濟狀態에 敏感하였으며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는 家口所得의 水準과 就業場所에 따라 달랐다. 둘째, 郡部婦人의 經濟活動은 就業機會의 有無에 敏感하였으며 賃金水準은 자신의 人的資本의 水準에 依해서라기보다는 出產子女의 數 또는 男便의 教育水準에 의하여 決定됨을 보였다. 市部婦人과는 對照的으로 出產力에 있어서 地域經濟狀態에 反應을 보이지 않았으며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는 自信의 教育水準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다. 셋째, 市·郡을 不問하고 젊은 婦人들은 그들의 教育水準에 對한 應分の 報酬를 期待하여 賃金 혹은 就業機會가 一定할 때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經濟活動이 活潑함을 보였다. 이들의 出產力은 子女養育에 따른 機會費用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賃金水準에 대하여 負의 關係를 보였으며, 子女教育에 있어서도 子女의 數와 教育間에 뚜렷한 代替關係를 보였고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婦人의 就業場所가 家事活動에 兩立的일수록, 子女教育에의 熱意가 높음을 보였다. 이들의 賃金水準은 本人의 教育水準과 出產力에 의하여 影響을 받으며 이는 35세이상 層의 賃金水準이 男便의 教育水準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 것과

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 2. 政策的 提言

上記 回歸分析의 結果를 利用, 長期的으로는 人口政策과 短期的으로는 人力政策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할 수 있다. 첫째, 韓國婦人을 經濟活動에 動員하기 위하여서는 地域別, 年齡階層別로 다른 政策을 要한다. 都市婦人은 賃金水準에 敏感하므로 貨幣의 誘因을, 農村婦人은 就業機會에 敏感하므로 보다 많은 就業機會를 提供하는 것이 效果的이겠다. 한편 都市·農村을 不問하고 젊은 婦人들은 그들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同一한 賃金水準 혹은 同一한 就業機會下에서는 經濟活動을 적게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動員하기 위해서는 貨幣의 誘因, 就業機會의 提供을 併行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의 教育水準이 就業能率과 無關한 것이라면 一般教育을 就業能率로 誘導할 公的 혹은 私的인 施策이 따로 必要하다고 하겠다. 35세미만의 都市婦人에 대하여서는 特別한 配慮를 要하는 바 이는 이들의 平均教育水準이 餘他婦人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둘째, 賃金水準의 提高는 韓國婦人의 出產力을 低下시키기 위해서도 必要한 것이다. 왜냐하면 賃金水準이 높다는 것은 可妊期에 있는 젊은 婦人들에게는 子女養育에 따른 機會費用이 높다는 것을 意味하며 그 결과 子女의 數를 그 質(教育)에 의하여 代替할 것이기 때문이다.

産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婦人의 賃金水準도 提高되고 또한 就業機會도 넓어질 것은 一見 自明한 事實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이러한 變化를 時急히 要한다. 왜냐하면 自然資源의

賦存에 비하여 韓國의 人口規模는 이미 相對  
的으로 過剩이며 벌써부터 動亂이후의 「베이

비 분」世帶가 可妊期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

- Becker, G.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nference Series II, Pre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0.
- Becker, G.S. and H.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PE* 81(2), Part 2, 1973, pp. s279~288.
- Becker, G.S. and Nigel Tomes,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PE* 84(4), Part 2, 1976, pp.s143~162.
- Benham, Lee, "Benefits of Women's Education within Marriage," *JPE* 82(2), Part 2, 1974, pp. s57~71.
- Bowen, William G., and T. Aldrich Finegan,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9.
- Cain, Glen G.,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6.
- Cain, Glen G., and A. Weininger, "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Results Using Cross-sectional Aggregate Data," *Demography* 10, 1973, pp.205~233.
- Cain, Glen G., and Martin D. Dooley,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s of Married Women," *JPE* 84(4), Part 2, 1976, pp.s179~199.
- Fields, Judith M., "A Comparison of Inter-city Differences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of Married Women in 1970 with 1940, 1950, and 1960," *JHR* 11(4), 1976, pp.568~577.
- Gronau, Reuben, "The Allocation of Time of Israeli Women," *JPE*, 84(4), Part 2, 1976, pp. s201~220.
- Hanoch, Giora, "An Economic Analysis of Earnings and Schooling," *JHR*, 1967, pp.310~329.
- MaCabe, James L., and Mark R. Rosenzwei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976, pp.141~160.
- Mincer, Jacob,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2(a).
- \_\_\_\_\_ "On the 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PE* 70 (2), 1962(b), pp.50~79.
- \_\_\_\_\_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arl F. Christ, ed., *Measurement in Economic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3, pp. 67~82.
- Mincer, J. and S.W. Polachek,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PE* 82(2), Part 2, 1974,

pp.576~108.

Schultz, T.P., *Fertility Determinants: A Theory,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Policy Evaluation*, R-1016-RF/AID, The Rand Corporation, 1974.

Schulz, T.W., ed.,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

*tal*,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4.

Willis, R.J.,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PE* 81(2), Part 2, 1973, pp. 514~64.